

# 하나님의 마음이 하늘나라요, 부처님의 마음이 극락세계

## 영생하는 몸으로 변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짐

### 마음=영, 영=피, 피=마음

“이 세상에는 종교가 없었다. 또한 이 세상에는 학문이 없었다.” 하는 말씀을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가 있는데 종교가 없었다고 말을 하면 그건 엉터리가 되는 것이요. 또한 학문이 있는데 학문이 없었다면 그 말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종교가 없었다고 이 사람이 말 하나 하면 영이 뭔지 모르는 것은 종교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이 뭔지도 모르는고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하늘나라 간다, 극락세계 간다, 이제 지옥 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떠나가는 영혼이 아닌데도 사람이 죽는 순간 영혼이 사람의 육체를 떠나서 극락세계나 이제그대로 천당이 나 하늘나라에 가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 참말로 한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그대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영이라고 하면서 이제그대로 마음이라는 건 피 작용이야, 물 작용이야? 피 작용이죠? 피 작용이라고 피=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영, 영=피가 되는고로 사람의 피가 사람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그대로 피가 이제 사람의 영이 되는고로 죽은 사람의 피가 죽은 사람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피가 살아 있는 자식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몸속에 있는 피는 흠이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피가 썩어서 흠이 돼버리지만은 죽은 사람의 피는 자식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많았

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 죽은 사람의 내세가 바로 현재

피가 같으니까 마음이 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같은 건데 닳았다고 한다면 이젠 무식한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그대로 오늘날 영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요, 생명이 영이라고 경속에는 쓰여 있는데 죄가 들어있는 사람들이 그걸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가 들어있으면 진리의 말씀이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영이요, 영 자체가 생명이요, 생명이 피요, 피가 생명이라는 말씀이 그 경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가 생명이요, 생명이 영인고로 죽은 사람의 영은 후손들 몸속에 있는데 죽은 사람의 영이 떠나간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 그게 미친 사람들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영이 살아있는 후손들 속에 있는고로 살아있는 사람들 몸속에 죽은 사람의 피가 있는고로, 무론 대소하고 죽은 사람들의 영이 살아있는 후손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내세가 현재요, 현재가 바로 죽은 사람의 내세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나 불경 속에는 극락세계나 천국이 이제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는데 살아있는 사람이나 마음이 있지 이제 죽은 사람에게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천당 간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죽은 사람의 피가 살아있는 후손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 조희성님

###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 어머니, 아버지 영만 있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영혼도 있고 증조할아버지, 할머니 영혼도 있고 고조할아버지, 할머니 영혼도 있고, 5대 조부, 6대 조부, 10대 조부, 20대 조부, 50대 조부, 100대 조부, 1000대 조부 피도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영이 지금 천당 갔다거나, 지옥 갔다거나 하는 것은 전부 틀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이 현재 살아있는 사람 속에 있는데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그대로 영생하는 몸으로 변하면 바로 그 사람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부처님이 계신 곳이 어디나 극락세계. 그리고 극락세계가 바로 부처님이 있는 곳이 극락세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늘나라요, 부처님의 마음이 극락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그대로 부처님이 되는 석가모니가 생미륵불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생미륵불이 오면 나도 그 생미륵불한테 가야 나도 열반에 들고 나도 도통할 수 있다.”는 말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승리제단은 죽지 않는 이슬이 내리는 곳  
그리고 이제그대로 생미륵불은 감로

수를 들고 나온다고 했고 성경에는 이슬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구세주요, 감로해인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정도령이라고 격암유록에는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이 감로해인을 들고 나오는 정도령이 나오면 죽지 않는 세상이 되고, 감로수를 들고 나오는 생미륵불이 나오면 이 세상이 죽지 않는 세상이 된다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열반경 8권에 “감로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제 그 말씀은 바로 감로가 되는 이슬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그대로 여기 승리제단이 죽지 않는 이슬이 내리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그대로 오늘날 구세주라고 하는 그 증표가 이슬이요, 감로수의 증표를 들고 나오는 사람이 생미륵불이요, 감로해인을 들고 나오는 자가 정도령이라고 예언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그대로 감로수를 들고 나오는 생미륵불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큰 복을 받을 사람들일까, 조그만 복을 받을 사람들일까? 큰 복을 받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제 이 사람이 천주 제단에 갔는데 어떤 스님이 오셨어요. 젊은 스님이! 그래서 감로 얘기를 했더니 “감로가 무엇입니까?” 그래. 그게 스님이야, 돌팔이 중이야? 돌팔이 중이야. 이 사람이 불경을 보지 못 했지만 이제그대로 불경에 구구절절이 감로에 대한 말이 쓰여 있는데 “감로가 무엇입니까?” 하는 정도면 승복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미륵불의 능력  
그래서 이제그대로 이 사람이 그 돌팔

이 중더러 “그러지 말고 이 포도나 좀 많이 잡수고 나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포도를 주섬주섬 다 가지고 가. 주머니에다 넣는데 이걸 거지새끼가 왔다냐. 배고픈 사람 쥐서 나는 기분은 좋지만 이제그대로 먹고 나가라고 그랬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가라는 소리는 안 했는데 그걸 주머니에 다 따서 넣고 나 먹은 것도 없게끔 만들어. 나 먹으라고 우리 식구들이 가져다 놓은 것이겠지요? 그걸 먹으라고 했더니 주머니에 다 집어넣고 가는 걸 볼 때에 “참말로 너 참 인물은 번듯하게 생긴 놈이 참말로 불쌍하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는 껌테기는 아주 성스러운 성직을 가진 사람처럼 옷을 입고 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마귀가 들어 있어가지고 참 생미륵불을 만나보는 걸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영수 선생이 꿈을 꾸고 당신의 부인에게 가보라고 그래서 왔던 거요? 그 부인에게 간증을 시켰죠? 간증 시켰더니 우리 남편이 꿈에 이제그대로 “역곡에 가라. 역곡에 이간지를 만나면 영생한다.”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역곡이 어디지 모릅니다.” 하니까 “승리제단이야.” 하면서 전화번호를 343-9981이 승리제단 전화라고 꿈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준고로 이제 일어나서 전화를 걸어보니 틀림없는 승리제단이야!

이 사람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제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으면 생미륵불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1992년 7월 2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옥 기자

###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 《2장 이삭의 하나님》

## (7) 이삭이 형 이스마엘에게 안부를 전하다

### (7) 이삭이 형 이스마엘에게 안부를 전하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마므레에 둘째단을 쌓고 매일 아침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하자, 이를 시기한 마귀가 그 땅에 흉년이든 재앙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아담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은밀한 계시가 마귀에게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마귀는 이삭이 사는 그 땅에 흉년이라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지 3년째 되던 해에 극심한 흉년이 든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만아들 예서가 장자명분을 경멸하여 겨겨 팔죽 한 그릇에 그 명분을 동생에게 파는 것을 목격하고, 남편 이삭에게 그 일을 고하고 또 “후동이 가 선동이보다 복되다.”라는 태몽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전하는 하나님의 계시 즉 태몽을 남편 이삭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또 이삭의 심중에는 오직 만아들에게 장자상속을 하겠다고 고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 이삭의 심령상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불리하게 되어 그 땅에 마귀가 내리는 흉년이라는 재앙을 물리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삭 78세에 흉년이 들어 거기서 살 수 없게 되자, 자신이 태어난 그 땅 땅을 경유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 땅에서 머무르라고 지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주장하여 이삭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비탄 광야 북부 브엘라헤로이에 흉년이 들었을 때, 남쪽에 이스마엘이 사는 곳도 가물어서 가족들이 먹을 풀과 샘물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마엘은 동생 이삭과 전혀 반대방향인 남쪽으로 이주하여 아라비아 반도 남서부 황해 연안에 위치한 메카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삭이 네게브의 ‘브엘라헤로이’에서 이주할 때, 아들 예서를 남쪽 비탄 광야에 거주하는 이스마엘에게 보내 “형님, 저 이삭은 극심한 가뭄을 피해 애굽 쪽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쪽은 편안하신지요?”라는 안부를 전했습니다. 이스마엘도 조카 예서로부터 이삭의 전갈을 받



그림에서 농사짓는 이삭 (창26:12) 그림 출처: http://divineseasons.blogspot.com

고 답장하기를 “아무님은 잘 지내신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뭄이 너무 심해 우리는 남쪽으로 곧 이주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네. 서로 반대방향으로 이주하게 되어서 이제 자주 만나기도 어려울 것 같으니, 어찌지!” 하고 못내 아쉬워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도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 (8)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의 출생지 그랄에 거하라고 하심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가려던 이삭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땅 땅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그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에 백배의 풍성한 수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에 순종하여 그랄에 거하면 큰 축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곳 그랄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 불로 잦터미가 된 후 아브라함 100세에 헤브론 마므레의 천막을 걸어 이사 온 그해에 이삭이 태어나서 모리아 산에 반체물로 바쳐지기 전까지 20년간 살았던 이삭의 고향입니다.

그 당시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종들이 여기저기에 우물을 파놓은 곳이 있었는데, 그 우물들을 지금 이삭은 더듬어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넉넉한 물과 풀이 있는 좋은 환경 속에서 이삭의 가족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속한 모든 우물을 막고 흠으로 매음

은 양떼와 소떼를 이룰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이삭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파던 우물들을 다시 파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매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는 양떼와 소떼와 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되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사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속한 모든 우물을 막고 흠으로 매웠습니다. 그랄 땅에 머문 지 20년 만에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하였습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물러나 천막을 쳤지만 계속해서 블레셋 목자들이 우물을 놓고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습니다. 분쟁을 싫어하고 화목을 추

구하는 이삭은 하는 수 없이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옮겼습니다.

그랄 땅의 좋은 목초지와 우물을 얻거꾸 블레셋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브엘세바까지 떠돌아다니는 한 이삭에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위로하였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에 둘째단을 쌓아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고 또 거기에 천막을 쳤습니다.

창세기 26장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음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세(Esek; 다툼)이라 하였으며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파더니 그들이 또 다투므로 그 이름을 시나(Sitnah; 대적함)라 하였으며\*